



My name is Sister Cory Canon (aka Gracia). I was born in Washington, D.C. in the shadow of the White House, according to my Mother! When I was 4 years old, we moved to Pittsburgh. It was at Holy Innocents Parish and grade school and eventually Elizabeth Seton High School where I grew to love the Sisters of Charity, their life and their mission. I found in their lives prayer, authenticity, caring for individuals, creativity, and fun. As a child, I prayed from a little pink prayer card, now tattered yet still in my possession, that reads, "say the word and I will be, Jesus what you ask of me." God provided experiences and time to answer



His call. I worked for a year at Fisher Scientific Company, continued to date a young man, and discerned (although that word was not in my vocabulary) what God was asking me to be. His answer, "A Sister of Charity." I entered in 1957 with Miss Kelly and Miss Long – (do you know them?). We were adopted by the group ahead of us and have celebrated together ever since.



Knowing that I like variety, God has blessed me with many different apostolates. As a postulant, my first mission, Herminie was short-lived; soon after innocently announcing that as I used a pretty blue mop, I could see my reflection in the shiny wood floors, I was changed to a convent with no shiny floors! For six years, I taught grade school in Johnstown, Greensburg, and Pittsburgh.



My 11 years with the Glee Club at Elizabeth Seton High School are among my happiest. Having been in the Glee Club under the direction of Sr. Cecilia Ward, and Sr. Alice Ruane, I came home to a place and spirit I deeply loved. Most of my ministries were in education: Music Consultant,



Principal, Assistant Superintendent in the Archdiocese of Cincinnati, and finally Parish Minister. The Cincinnati Sisters of Charity became my family away from home for 30 years. Sr. Terry Dery, SC became and continues to be, from heaven, my dearest friend and we valued the shared charism of our Communities.



In 2018, I returned to Caritas Christi where the warmth and welcome of our Sisters eased this transition. Presently, I am journeying with Sr. Hyeon Nyeon Lee as Formation Director. Being new to this ministry, I have the opportunity to study in the Religious Formation Program sponsored by Catholic Theological Union, Chicago.

"...Jesus what you ask of me," has graced and motivated my life as a Sister of Charity. Gratitude fills my soul. In closing: Coronavirus is raging; it is Divine Mercy Sunday. So be it. Amen.



저는 코리 캐년 수녀(Sister Cory Canon)입니다. 그라시아(Gracia) 수녀라고도 하지요. 저는 워싱턴 D.C.(Washington, D.C)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백악관 그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4 살 때 피츠버그로 이사를 왔어요. 홀리 이노센츠(Holy Innocents)분당과 본당의 초등학교,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Elizabeth Seton High School)에 다니며 자란 덕에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과 수녀님들의 삶, 선교 사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 수녀님들의 삶을 통해 기도와 진실함을 보았고 창조성과 즐거움, 사람을 돌보는 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기도를 드리던 작은 분홍색 기도 카드에는 “예수님, 말씀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루겠나이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비록 낡았지만, 그 카드를 지금도 가지고 있지요. 하느님께서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체험도 하게 해 주셨어요.



저는 1 년 동안 피셔 사이언티픽 컴퍼니(Fisher Scientific Company)에 다니면서 한 청년과 교제도 계속했지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식별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식별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요. 그분이 원하시는 답은 바로 ‘사랑의 씨튼 수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957 년 켈리(Miss Kelly)와 롱(Miss Long)이라는 친구와 함께 입회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먼저 들어온 그룹에 합류했고 수도 생활을 함께 하며 기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다양성을 좋아한다는 점을 아시고 여러가지 다양한 사도직을 하는 축복을 내려 주셨어요. 청원자 때 첫 사도직으로 허미니(Herminie)에 있는 분원에 아주 잠깐 살았습니다. 그 때, 순수했던 저는 수녀님들에게 파란색 대걸레로 수녀원 마룻바닥을 닦아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윤이 나게 만들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는 곧바로 다른 분원으로 가게 되고 말았어요. 마룻바닥이 없는 수녀원으로요!

6 년 동안은 존스타운과 그린스버그, 피츠버그의 초등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에서 11 년 동안 합창부인 글리 클럽(Glee Club)과 함께 한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래전 세실리아 워드 수녀님과 앨리스 루앤 수녀님 (Sr. Cecilia Ward, a Sr. Alice Ruane)이 지도했던 글리

클럽을 맡으며 마음깊이 좋아했던 집과 같은 곳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저의 대부분의 사도직은 교육 사도직이었어요. 신시내티교구에서 음악 장학사와 교장, 부교육감을 지냈고 마지막으로 본당 사도직도 했습니다. 우리 수녀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30 년 동안 신시내티 사랑의 수녀회는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신시내티 수녀회의 테리 데리 수녀(Sr. Terry Dery)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지금은 천국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테리와 저는 신시내티 수녀회와 우리 수녀회가 지닌 공동의 카리스마를 소중히 여겼답니다.

2018 년 저는 까리타스 크리스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수녀님들의 따뜻함과 환영으로 편안하게 돌아와 적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유기 서원장으로서 이현년 수녀님과 동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 사도직을 하면서 시카고 가톨릭 유니언 신학 대학(Catholic Theological Union, Chicago)에서 하는 양성 프로그램(Religious Formation Program)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루겠나이다.”라는 기도문은 사랑의 수녀로서의 제 삶에 은총이자 원동력이 되었지요. 제 영혼은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지금, 오늘은 하느님 자비 주일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